

한센인의 ‘요양소 가는 길’ 연구 -장편소설 『낙화유수』와 재일교포 환우수기 『형극의 반생기』를 중심으로-

오현석
(부산대)

1. 들어가며
2. 한센인을 둘러싼 굴레와 ‘요양소 가는 길’
3. ‘요양소 가는 길’에서 마주친 자기 인식
4. 나오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센인이 한센병 요양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체성 문제와 타자화 문제를 다루었다. ‘요양소 가는 길’은 단순히 한센인들이 물리적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일반인으로 살아오다가 한센병을 진단받고 사회적 타자가 된 자신에게 적응이 필요했다. 그래서 ‘요양소 가는 길’은 한센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장편소설 『낙화유수』는 주인공 김백수가 요양소로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된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서술하고 있다. 재일한센인 川野順의 『형극의 반생기』는 작가가 일본에서 한센병 진단 후 요양소로 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조선인이자 한센인으로 살아온 이중

의 마이너리티 속에서 겪은 차별과 배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두 작품에서 그들은 요양소 가는 길 위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깨달음을 얻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자기를 객관화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한센인, 한센병, 한센인 문학, 한센병 요양소, 재일 한센인

.....

1)

1) 한하운(2010). (재)인천문화재단 한하운 전집 편집위원회 엮음, 한하운 전집, 문학과 지성사, 67쪽.

2)

1920

3)

-
- 2) 에드워드 펠프(2017).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86~88쪽. 공동체와 장소는 관계 맺음을 통해 서로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공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지닌다. 한센병 요양소 역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로서 사회적 공간임과 동시에 고향을 떠난 한센인 개개인이 선택한 정착지이기도 하다.
- 3) 김재형(2021). 질병, 낙인, 돌베개, 109~112쪽.

1916
1935 < >
1934
4)
1920 4,300
, 1 5)
()
() 1920
6)
()
- - 7)

4) 정근식(2002). 동아시아 한센병사 연구를 위하여, <보건과 사회과학> 12, 22~23쪽.

5) 사천여 나환자 중 영남이 과반수, 동아일보, 1926.1.25.

6) 김재형. 앞의 책, 39쪽.

7) 김재형(2021). 식민지기 한센병 환자를 둘러싼 죽음과 생존, 최해별 외 8인, 질병 관리의 사회문화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15쪽.

,8)

9)

. 2 3

1917 73

1940

6,136

.10)

, 1935 < >

8) 오현석(2017). 한센인의 유랑과 정착에 대한 불안 의식 연구-한센병 문학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79, 101~134쪽.

9) 오현석(2021). 한센인 잡지 복지를 통해 본 한센인의 고향상실: 탈향, 귀향, 실향의 서사, <한국민족문화> 80, 207~237쪽.

10) 소록도병원(1996). 연도별 환자추이, 소록도 80년사, 소록도병원, 319쪽.

1930 1940

11)

12)

1930

10

1971

1975

13)

1930

1930

1935 <

>

1931 <

>, 1940 <

>

()

14)

-
- 11) 무명생(1953). 낙화유수, 정음사. 이 소설에 대한 분석은 정근식과 한순미의 연구를 참고할 것. 정근식(2004). 사회적 타자의 자전문학과 몸-심승의 ‘나문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3, 325~353쪽.; 한순미(2012). 상처는 왜 쓰는가-한국 나환자 심승의 자전소설과 치유서사의 역사적 맥락, <인문과학연구> 34, 471~498쪽.
 - 12) 川野順(1975). 신정하 옮김, 형극의 반생기, 삼일각. 이 책은 ‘재일교포 환우수기’라는 이름으로 발간한 책이다. 신정하는 한센병 잡지인 월간 새빛의 편집인, 월간 정착의 편집장을 맡았던 인물로 잡지 발간 과정에서 川野順과 인연을 맺게 되어 한국에서 형극의 반생기를 출판하게 되었다.
 - 13) 川野順. 저자의 변(辯), 위의 책, 4쪽.
 - 14) 이지형(2019). 과잉과 결핍의 신체, 보고서, 59쪽.

. . . , 1930

.

, ,

15)

1933

1930

1930

. 16)

15) 오현석(2021). 앞의 논문, 214~215쪽.

1930

.17)

1930

16) 김우철(1934.6.13.). 문예시평 7 작가의 체험과 진실,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17) 김재형. 앞의 책, 58~59쪽.

1930 1940

18) 1915

1933 ()

()-

1937

2

()

()

()

()

19)

18) 川野順의 한국 이름은 유순범, 일본 이름은 가와노 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센병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도 저자의 뜻에 따라 한자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는 일본에서 한센병 투병 생활을 하면서 단가회에서 활동하며 육지 속에 섬 (1957), 가시나무 (1972), 한센요양소가인전집 (1987) 등 단가집과 수필집 등의 문학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contentsId=GC95201393&localCode=jpn>) (검색일: 2023.2.13)

19) 川野順. 저자의 약력, 앞의 책, 173쪽.

1930

< (=) > 20)

21)

22)

B

23)

20) 川野順. 위의 책, 38쪽.

21) 川野順. 위의 책, 41쪽.

22) 상애회는 1920년 일본 동경에서 조직된 친일 단체. 겉으로는 제일조선인 동포를 돕는다는 목적을 가졌지만 일제의 사주를 받아 일본 내 조선인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단체로 조선인 노동자들을 학대, 폭력, 착취한 기관이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Article/E0027197) (검색일: 2023.2.13)

23) 川野順. 위의 책, 46~47쪽.

24)

1

()

24) 川野順. 위의 책, 47쪽.

.25)
< () > ()
) ()
. < () ()
() > .
.
.
.26)

2

1930

25) 川野順. 위의 책, 49쪽.

26) 川野順. 위의 책, 52쪽.

()

3

()

()

27)

<

>

28)

27) 川野順. 위의 책, 120쪽.

28) 위의 책, 같은 면.

20

?

? ()

.....
)²⁹⁾

(, 5

?

.....

.(, 13)

29) 3장에서 낙화유수와 형극의 반생기 의 인용문은 인용문 끝에 제목, 쪽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출처 표기를 대신함.

!
()

? !

() ? (, 32)

30)

31)

()

30) 마사 너스바움(2015).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168쪽.

31) 위의 책, 170쪽.

()

! (, 48 50)

?

!
?

!

! (, 54 55)

(, 38)

?

.....

? ? !

.(, 39)

..... !

..... !

! (, 69 70)

?

..... !

? (, 72 74)

.(, 89)

? (,

95 96)

1930

()

(, 169 171)

32)

32) 오현석(2021). 앞의 논문, 229쪽.

?

?

1937

< >

13

33)

34)

()

< ()

>

()

()

(, 75)

?

?

?

?

33) 이지형. 앞의 책, 103쪽.

34) 이지형. 앞의 책, 105~106쪽.

! ()
(隸)
() ()
(, 86 87)

1930
() ()
()

() . (, 70)

4 5

(, 73)

()

()

()

35)

() 36)

()

() 37)

() 38)

13 39)

1907 < > 1931

< >, 1948 < >, 1952 <() >

. 40)

35) 川野順. 앞의 책, 98쪽.

36) 사회복지법인 심경원(야마나시현 미나미거마군 미노부초 미노부 3637). 1906년(메이지 39년)에 입소자 13명으로 사립병원으로 개원하였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 후 현재는 장애인 요양 및 치료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1930년(쇼와 5년)에 일본 규슈에 분원을 설치했다가 1942년(쇼와 17년)에 폐쇄했다. 川野順은 1939년~1940년까지 규슈 분원에 입원했다. <https://jinkyoen.jp/?1676255141> (검색일: 2023.2.13)

37) 국립 요양소 기쿠치 에카이엔(구마모토현 고우시시 사카에 3796). 이곳은 1909년(메이지 42년) 수용 정원 150명 규모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19년(제이와 원년) 개원 110주년을 맞이했으며 179명의 한센인이 생활하고 있다.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ryou/hansen/keifuen/ (검색일: 2023.2.13)

38) 국립 요양소 호시즈카 경애원(가고시마현 가야시 호시즈카초 4204번지). 이곳은 1932년(쇼와 7년)에 수용 정원 300명 규모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ryou/hansen/keiaien/index.html (검색일: 2023.2.13)

39) 13곳의 구체적인 한센병 요양소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https://www.mhlw.go.jp/general/saiyo/hansen-doctor/> (검색일: 2023.2.13)

40) 김재형 오하나(2019). 이행기 정의를 통해 본 일본 한센인 운동, 1946~2009, <사

1930

113)

()

(, 111)

()

1940

회와 역사> 121, 299~300쪽.

. (, 89)

, 96)

()

(, 115)

()

()

.(, 119)

41)

41) 川野順. 앞의 책, 119쪽.

1930

1930

.

『 』

‘ ’

• •

성 명 오현석

소 속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자우편 ohssek@hanmail.net

| Abstract

“

,

”

Oh, hyoun-suk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ealt with the identity problems and otherization problems that Hansen's people face in the process of visiting the leprosy sanatorium. The "road to leprosy sanatorium" was functioned to recognize and grasp themselves objectively. The full-length novel "NAKHWAYUSU" describes many moments of pain that the main character Kim Baek-soo experienced on his way to the leprosy sanatorium.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of 川野順's work describes the process of the author going to the leprosy sanatorium after being diagnosed with Hansen's disease in Japan. And they are accept their existence, which has changed from before, on the way to the leprosy sanatorium.

Hansen's people, Hansen's disease, Hansen's disease Literature,
Leprosy Sanatorium, Zainichi Korean Hansen people

투고일 2023. 02. 26 / 심사일 2023. 03. 13 / 심사완료일 2023. 03. 13